

투데이 칼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선거의 진정한 가치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절차의 공정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아무리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투표와 개표 등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그 결과는 공동체의 승인을 얻기 어렵다. 결국 선거의 정당성은 결과물인 '당선'이 아니라, 그 결과를 뒷받침하는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을 논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절차가 신뢰받지 못하면 승자는 정당성을 잃고, 패자는 결과에 승복할 명분을 잃게 된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투·개표 과정의 조작 가능성이나 특정 세력의 개입설이 반복적



최치원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으로 언급되지만, 이는 대개 복잡한 절차에 대한 오해나 근거 없는 추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의혹이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점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히 공정함을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투명한 공개와 정밀한 절차를 통해 그 결백함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마련된 장치들은 매우 엄격하다. 투표용지 인쇄부터 사전투표

자의 보관 및 이송에 이르는 단계마다 정당 추천 위원들이 직접 입회하여 감시한다. 투표 현장을 관리하는 인력 역시 법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임한 참관인들이 (사전)투표소 내부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개표 현장 또한 철저한 상호 감시 체계 아래 놓여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개표 사무에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추천한 참관인뿐 아니라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선거

관자 개표참관인들이 언제든지 개표 상황을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였다. 투표자분류기를 거쳐 정당·후보자별로 구분된 투표지를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다시 한 장 씩 손으로 넘기며 확인하는 절차이다. '과하다' 싶을 만큼의 이러한 절차들은 선거 사무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벽이다.

결론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결과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선거 결과는 비로소 우리 공동체의 합의된 판단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절차 사무를 빈틈없이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선거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독자재언

가정의 달,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가족의 안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공원과 축제장, 관광지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기이지만, 이와 함께 아동 및 치매 어르신 실종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종사고는 대부분 순간의 방심에서 발생한다. 보호자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으로 향한 사이 아이가 길을 잃거나, 차매를 잃고 있는 어르신이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출 전 아이에게 보호자 연락처를 숙지 시키고, 눈에 띄는 옷차림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치매 어르신의 경우 배

회감지거나 인식표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경찰서에서 운영중인 사전 지문등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리 아동이나 어르신의 지문과 보호자 정보를 등록해두면, 실종 발생시 보다 신속한 발견과 귀가에 큰 도움이 된다.

경찰은 실종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관심과 예방 노력이다.

가정의 달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서로를 지켜야 할 책임도 커지는 시기이다. 잠깐의 방심이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위협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의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5월의 약속이 될 것이다. 유해인 고창경찰서 모영지구대 순경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호르무즈 해협, 봉쇄될 것... 페르시아만은 사냥터”



4월(현지 시간)이란 테헤란의 혁명광장에서 열린 친정부 집회 참가자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이들 뒤에는 미국 항공기가 이란군의 그물에 걸려 있는 모습을 묘사한 대형 사진이 걸려 있고,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될 것, 페르시아만 전체가 우리의 사냥터”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설

호남 선교역사 조명

서울대 규장각에 잠들어 있던 한 장의 공문서가 130여 년 전 전라도 땅의 복을 전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최근 남원동북교회에서 제2회 역사 세미나가 열렸다.

남원동북교회 역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연구소와 남장로교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은수 교수가 초청돼 미 남장로교 전라도 선교사에 관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성경 번역과 한국인에 대한 동화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선거 결과는 비로소 우리 공동체의 합의된 판단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절차 사무를 빈틈없이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선거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춘 인물이었다. 드류 선교사를 통해 병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전라도 일대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선교의 포문을 열었다고 최 교수는 전했다.

1899년으로 기록된 해당 공문은 관리 이용악이 남원 군수에게 보낸 것으로, “선교사가 남원에 내려가는데 이 사람을 감속하고 제한하지 말고 최대한 협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교수는 해당 선교사가 미국인이 아닌 영국 선교사였으며, 당시 광물 개발을 수단으로 삼아 남원에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기독교 역사관 건립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역사관은 오래된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생태·개발’ 공존 과제

국책 사업 이면엔, 어두운 그림자 또한 있다. 생태와 개발의 공존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앞으로 30년 또 끌어안고 소위 ‘끝판’이란 걸 계속할 것인가. 진지하게 현실적인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끝판마이 20년, 바다를 땅으로 메우는 사이 새만금 곳곳엔 생채기가 있다. 방조제 인공 수질 악화 속에, 수면 위쪽은 염분이 낮아지고 아래쪽은 산소량이 적어져 해양 생물이 살기 힘든 곳이 됐다.

바다보다 수위를 1.5미터 낮게 유지하는 대신, 제한적 수문 개방을 상시 해수 유통으로 전환하는 요구가 잇따르는 이유다.

새만금도 살리고 개발도 하자면 -1.5m 포기하고 개발계획을 새로 짜야한다. 수질 악화는 바다를 더 전으로 삼던 어린 삶을 흔든 큰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어중 감소와 해파리 급증 속에 전복의 어획량은 새만금 첫 삼을 뜬 1991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신항 개발 역시 어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분진이 쌓여 배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되고,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주변 어민들과 소통도 없이 의견도 안 들어보았다.

갯벌 등 생태 자원의 활용 방안을 찾고, 농생명용지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생산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더딘 매립 속도에 기존 용지와 주변 농지를 활용해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는 등,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할 때다.

용지를 활용할 경우엔 액수가 3분의 1로 줄고 기간도 3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전복도가 원하는 계획의 70%를 달성할 수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